

靑白色的磁器片이 많이 나오며 개종에는 언저리가若干 뒤집어진 주발形的破片도 섞여 있다.

(註) 近來 釜山地方의 骨董商에서는 이와같은 그릇을 「金海茶碗」이라 하여 팔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2) 大東面 甘內里 支石墓

大甘國民學校의 南쪽 道路 西側 番中에 高大한 撐石二基가 있는데 一基는 支石의 一部가 露出되어 있다.

(3) 黃山津 附近

三國史記에 有名한 「黃山나루」는 지금 京釜線 勿禁驛 附近에서 對岸上 東面 梅里 사이의 「나루」를 指稱한 것인데 이 나루에서부터 梁山이 六km 金海가 一六km의 距離에 있다.

新羅와 駕洛의 兩勢力이 맨 처음에 衝突한 곳이 바로 이 地點인데 여기서 金海까지는 洛東江으로 흐르는 溪川을 따라 西쪽으로 길게 뻗어 金海邑 三溪洞에 이르는 約 三十里의 山峽地帶가 唯一한 交通路가 되어 있다. 이 地帶는 한 때 新羅의 駕洛侵略路로 또 뒤로는 新羅文物의 交流루트로서 重要한 구실을 했을 것이므로 關心을 가지고 調査하였으나 이렇다할 成果를 얻지 못하였다.

高麗 梵鐘의 新例 (其六)

黃 壽 永

昨·今 兩年에 걸쳐서 全國各地의 寺址에서 주로 高麗代의 小鐘이 相當 數 出土되어서 博物館과 個人에 收藏되었다. 이같이 近年에 梵鐘 遺例가 增加되고 있는 一因은 京鄕各地에서 볼 수 있는 古鐵蒐集의 盛行인바 그들이 使用하는 소위 地雷探知器具의 威力이라 한다. 이같은 流行은 古代遺蹟의 保存을 위하여 憂慮되는 일로서 그 破壞와 遺物에 대한 關係 知見의 喪失을 招來하고 있는 바 出土器은 비단 梵鐘 뿐이 아니라 銅劍

佛像 金鼓 기타 各種 各代의 金屬品이 包含되고 있다. 一九六四年 八月 本誌에 실은 高麗梵鐘의 新例(其五) 이후 필자가 調査한 遺品을 앞으로 數回에 나누어 紹介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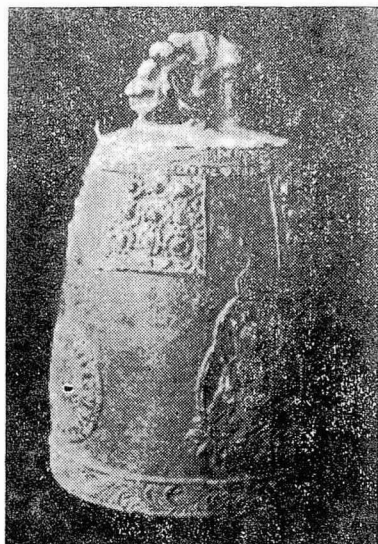
一、傳江原道出土 銅鐘(一九六五年 九月二十一日 調査)

通式的 小鐘으로서 黑色을 보이는 鐘體에 大小三孔이 있는 以外는 거의 完全하다. 上帶(仰蓮花單瓣)와 넓은 下帶(四段稜形帶로서 花紋과 雷紋)가 있고 四乳廓(各九乳)은 上帶에서 分離되었으며 撞座는 乳廓下에 計三座가 있는 바 둥글게 蓮花紋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乳廓 間地에는 撞座와 交代하여 侏儒形(三)과 樂器(?)形(二)가 陽刻되어 있다. 긴 甬筒(高十·七cm)과 龍鈕가 있는 바 鐵銹가 보임은 鐵製縣索으로 因한 듯하다. 全高三二·五cm 鐘高二一cm 上徑一一·五cm 下徑十八·八cm 厚二cm、江原道出土라고만 傳하는 바 紋樣과 鑄造는 精巧하지 못하며 下代作으로 보인다.

(註) 金鼓 一個가 伴出되었는데 通型으로서 徑二六·五cm、表面中央에 裂線이 있다.

二、梨大藏 小鐘

一九六六年 봄에 出土入手한 小鐘으로서 全高十七cm 鐘高十三cm 下徑十·八cm 上徑七·五cm에 불과하나 各部樣式이 具備하며 彫刻 또한 細密하다. 上·下帶에는 細葉唐草紋이 있고 四乳廓(各九乳)間마다 交代로



菩薩合掌形坐像과 圓形蓮花紋撞座가 各二座씩 配置되었는데 鐘 크기에 比하여 過大하다. 鐘肩에 立狀蓮紋이 一部 남았고 甬筒과 龍鈕는 完全한 高麗小鐘의 一優品이다.

三、幸西寺 小鐘

日政期부터 傳來하는 靑綠繡의 小鐘으로서 서울 車明浩氏가 現藏하고 있다. 通式。로서 鐘肩에는 三角立狀蓮紋帶가 둘러 있고 上·下帶(唐草紋) 四乳廓(各九乳)이며 乳廓間에는 蓮花紋 撞座와 菩薩坐像이 各二交代하고 있다. 甬筒上에는 八珠가 裝飾되어 있고 龍鈕는 前·後足에 舍珠形이다. 鐘體에는 五行의 刻銘이 있어 字徑 一·五cm이다.

施主□何 「應瑤珠」 開州地 「幸西寺」 至庠三序(六叔)  
總高 十八cm 鐘高 十三cm 上徑 七·五cm 下徑 十一·二cm

谷城 堂洞里 逸名寺址 調査

——全南 谷城郡佛蹟 三一——

鄭 永 鎬

竹谷面 堂洞里一區의 대나무밭(竹林)속에 廢寺址가 있는데 그곳에는 法堂址에 柱礎石이 散亂하며 石塔材와 蓮華紋板石等이 隣接洞리에 移搬放置되고 石佛坐像 一軀가 洞口路邊에 移安되어 있다. 이 寺址에 關하여는 記錄에 없으나 現存遺物과 遺蹟으로 미루어 보아 當初에는 宏大한 規模의 寺刹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現在 寺址 및 附近洞리에 散在한 遺物을 여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一、寺址遺物과 石塔材

대나무밭 가운데 高二m 長約五十m 가량되는 石築址의 餘적이 있고 그 위 臺石에 羅代式的 圓座가 있는 礎石이 많는데 手法은 麗代로 降下된다. 石築이 東西로 뻗은 것으로 보아 南向寺刹이 있었을 것이다.

(礎石外徑 四八·五cm 礎石內徑 四三cm)

築臺 밑 언못(池)가에는 塔 基壇部로 보이는 二枚石이 埋沒되어 있는데 側面에는 眼象이 二區씩 陰刻되어 있다.

洞里와 竹林 사이의 溪流에 長方形의 石橋板石이 하나 놓였는데(一五



現在 朴泰安氏宅 옆 空地에 있는 堂洞里 石佛坐像 ① 左便에 安置되어 있는데 筆者가 調査할 때에는 臺座中石下部까지 埋沒되어 있어서 約一

二、石佛坐像

屋身石高 五九·五 舍利孔徑 十七·五  
" 幅 五五·五 " 深 十七·五  
" 隅柱幅 十一  
" 下面外圓徑 十七  
" 內圓徑 七  
" 圓孔全深 四

三cm × 八七cm) 下面에는 七二cm × 四四cm의 받침이 마련되고 그 周邊에 彫飾이 있는 蓮華紋을 둘러었다. 이 蓮瓣石은 또한 다른 同一石二枚로 짜여진 어떤 部分의 臺石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中一石은 一邊長 一五四cm 高 一五五cm이다)

石塔材는 初層身·蓋二石을 調査하였는 바 屋蓋石은 이 마을居住 李起洪氏가 竹林에서 옮겨 自己집 우물옆에 埋래판으로 놓았다. 轉角에 磨損이 있으나 手法이나 形式은 알 수 있어 받침 四段 落水面的 傾斜等으로 미루어 麗代로 推定되었다. 下面中央에 二重의 圓孔이 陰刻되었음은 屋身의 舍利裝置關係일 것이다. 身石은 堂洞里一區一〇一番地 朴泰安氏宅 솔타리 바로 옆에 放置되어 오래 前부터 某人士(縣監)의 善政碑 臺石으로 使用되었다. 四面 兩隅柱는 整然히 刻出되었으며 上面에는 圓形의 舍利孔이 있다. 實測值(cm)는

時間半의 下臺發掘을 하고 난 뒤 調査하였다. 그때 朴氏도 作業을 도왔는데 이 佛像의 移安經緯를 詳細히 들을 수 있었다. ② 옮겨진 佛像이어서 地臺石은 없이 方形下臺를 놓고 그 위에 方形中·